

7/2/23

설교 제목: 그 날이 오면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스가랴 12 장 1- 14 절

- (스 12:1)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와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 (스 12:2)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 (스 12:3)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절관주** 단 2:34, 단 2:44, 단 2:45,
- (스 12:4)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절관주** 시 76:6
- (스 12:5)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 (스 12:6)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절관주** 사 10:17, 스 11:1, 사 41:15, 스 2:4
- (스 12:7)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절관주** 렘 30:18, 암 9:11
- (스 12:8)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와 사자 같을 것이라
- (스 12:9)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절관주** 스 14:2
- (스 12:10)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절관주** 출 12:30
- (스 12:11)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므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절관주** 마 24:30, 계 1:7, 대하 35:24
- (스 12:12)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 (스 12:13)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절관주** 고전 7:29
- (스 12:14)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우리 나라는 1910년 8월 29일 일본 제국에 강제 병합되어 1945년 8월 15일 광복되기까지 35년간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를 당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나라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아픈 시기입니다.

일본 제국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여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및 군대 통수권을 장악했습니다.

헌병 경찰 제도를 창설하여 헌병으로 하여금 일반 국민에 대한 경찰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국토 면적의 약 62%에 달하는 토지를 약탈했습니다.

조선 교육령을 공포하여 민족 말살 정책과 수탈 정책, 식민지 교육 정책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언니들은 분개하였고 저항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숨을 바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만주로 가서 독립 운동을 했습니다.

시인들은 나라 잃은 슬픔을 애도하며 저항시를 썼습니다.

심훈의 '그 날이 오면',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육사의 '광야', 윤동주의 '서시', 한용운의 '님의 침묵' 등등...

나라를 되찾기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토록 소망하고 고대했던 광복의 그 날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날, 온 국민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환호하며 광복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소망하고 고대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 사상이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 백성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을 심판하고 선민인 자신들을 구원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날을 열망하고 고대하며 삽니다.

선지자들은 '그 날' '주의 날'을 계속 언급하며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들은 그 날이 오면 메시아가 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 통치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그들의 목시 문학에는 어김없이 '그 날'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본문에서 그 날을 언급하며 그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합니다.

임박한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적인 일과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궁극적으로 성취하게 될 일을 예언합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구원,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과 회개를 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합니다.

경고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위로의 메세지입니다.

(스 12:1)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와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스 12:2)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스 12:3)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스 12:4)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스 12:5)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 날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공격하는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그 포위하고 있는 사면 모든 민족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마치 술에 취한 양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 그것을 드는 모든 자를 크게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려 하지만 도리어 자신들이 상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러 말을 타고 오나 하나님이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하고 눈이 멀게 할 것이며 그 말 탄 자들을 쳐서 미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유다 족속을 돌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슥 12:6)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 날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나 예루살렘은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을 압도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될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고 당신의 백성을 치러 오는 모든 대적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방을 예루살렘보다 먼저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슥 12:7)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에는 높고 견고한 성곽이 있으나 유다 장막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힘으로는 대적들을 도저히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윗 집’은 이스라엘 왕족을 가리킵니다.

‘다윗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승리의 영광 곧 구원이 모두에게 동일하고 공평하게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힘있는 자를 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 힘 없는 자, 소외된 자를 먼저 생각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보호하시는 그 날에는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중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강하고 용맹하여 전쟁에 능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슥 12:8)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슥 12:9)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 날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대적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강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그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일어날 회개의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슥 12:10)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날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찔림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오순절 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기도하던 120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숨어지내고, 또 자신들의 미래를 염려하며 의기소침 지내던 제자들은 담대함을 얻고 사람들 앞에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마음에 찢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고 회개했습니다.

(행 2: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행 2: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행 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행 2: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행 2: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행 2: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므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은 것입니다.

(슥 12:11)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므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은
것이라

므깃도는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했던 곳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슬피 울며 애곡했습니다.

그 때와 같이 그들은 성령을 받고 애통하며 슬피 울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온 민족이 슬피 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족속마다 가족마다 따로 슬피 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슥 12:12)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슥 12:13)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슥 12:14)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다윗의 족속은 유다 왕가를, 나단의 족속은 다윗의 아들의 가문을, 레위 족속은 제사장 가문을
의미하며, 시므이의 족속은 레위의 손자 중에 있었던 가문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애통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다행히 아직 죄와 허물을 씻는 샘이 열려있습니다.
머지 않아 이 샘이 닫힐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싶어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구원받을 때입니다.